

6

충북지역사회연구회의 활동과 과제

유진채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1. 설립 취지와 배경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의 실질적 종식과 함께 한반도의 통일 실현이 눈앞의 과제로 대두하는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한편, 해방 이후의 파행적 역사 발전이 초래한 누적된 모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한국 사회의 총체적 민주화 실현이라는 과제로 집중되고 있다. 우리 현실의 제반 모순들이 구체적으로 관찰되는 현장은 바로 지역사회이며, 그동안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상의 문제가 절

대학과 지역사회연구모임

1. 대구사회연구소
2. 호남사회연구회
3. 제주 4·3 연구소
4. 전남사회연구회
5. 영남노동운동연구소
6. 충북지역사회연구회의 활동과 과제
7. 경기지역사회연구소
8. 경남사회연구소

실한 사회문제로 심화되어 왔다. 우리의 역사적 과제의 해결 역시 사회 전체의 모순이 집약되어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소외된 삶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중앙집권적 비민주적 통치형태 아래 우리 지역의 현실은 파행적으로 정체되고 말았으며, 지역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일방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연구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연구자들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한 복잡다기한 현실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연구 결과를 집적함으로써 그 실체가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 및 한국 사회 전체의 구조와 그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입각한 객관적 과학적 연구가 필수적 전제이며, 여러 학문 영역이

상호관련을 갖고 유기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비로소 생산적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회는 90년 9월 23명의 청주지역 교수들이 발기하여 이루어졌다. 동 연구회는 충북지역 연구와 정보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연구소 설립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지역 연구자들은 이제까지의 개별적 분산적이었던 연구방식을 지양하고, 공동의 관심과 노력을 모아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지역과 한국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지역연구는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나, 동시에 지역 현실이 속해 있는 전체 현실을 외면하는 고립적인 연구 태도는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구는 일방적인 중앙중심적 보편주의적 태도와 함께 편협한 지방이기적 분파주의적 태도 또한 배격한다. 그리하여 지역이 처한 현실에 대해 진정한 분업과 협업의 원리에 입각한 종합과학적 접근을 추구한다. 우리의 연구능력이 아직 취약하고 여건이 열악하며, 종래의 수공업적 연구방식과 개별 연구자의 고립적 연구자세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일임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결실을 당장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역사회연구소 창립을 통해 우리는 개별 연구자의 연구 활동과 지역 전체의 연구 활동을 매개하고 지역사회가 지닌 문제의 해결을 우리 사회의 총체적 발전과 결합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는 당면한 현실이 제기하는 절실한 요구에 주체적 적극적으로 응하는 학문적 자세임을 확신한다.

2. 조직과 운영

본 연구회는 충북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회원은 연구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능력이 인정되어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원, 일반 자료와 연구 정보를 받아보는 자료회원, 연구회에서 진행되는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후원회원으로 구성된다. 실제 연구회의 회원은 95년 8월 현재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 등에 근무하는 교수 23명과 자료회원 3명으로 전공 영역은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공학, 농학과 의학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있다.

집행부는 소장 1명, 총무 1명, 감사 2명, 운영위원회 그리고 연구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원과 자료회원의 회비, 출판물의 인세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는데, 현재로서는 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3. 활동 내용과 성과

본 연구회의 활동은 월례발표회, 윤독회, 논문집 발간, 회보 발간 등에 한정되었다. 회보는 91년 5월에 첫 호가 발간되었고, 윤독회에서는 93년 2월부터 94년 1월까지 1년간 충북지역의 읍지 등을 읽고 요약, 발표, 토론하였다. 활동내용과 성과의 소개는 월례발표회와 논문집 발간에 한정하였다.

1) 월례발표회

월례발표회는 회원과 비회원 또는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충북지역사회문제와 일반적 관심사항에 대한 발표를 듣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학제간 교류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충북지역사회와 관련된 월례발표 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청주시내 중고생의 비행실태와 원인
- 청주시내 주민 조직의 커뮤니티성과 지도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충북 보은군 주민의 기생충 감염상
- 충북 지역의 교통문제와 대책
- 충북 제조업의 경쟁력 분석
- 정보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 청주시 정보조례
- 보은읍지
- 청주시 공간구조 개편방향
- 충북 제조업 인력 수급 현황과 원활화 방안
- 청주 노동운동의 현황과 청주노동자의 집
- 아시아 조종의 생활사와 충북도민의 생식 습관에 관한 연구
- 충북 도시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관한 연구

충북지역사회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일반적 관심사항으로 학제간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킨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독점자본의 금융지배의 실태와 원인
- 도시빈민 가족 문제에 대한 사회사업 실태에 관한 연구
- 도시 빈민층의 형성과 재생산
- 생산직 여성노동력의 성격에 관한 연구
- 일본 고오베 시의 도시환경 및 관리와 도시공원 입지 효율성의 측정
- 투표 행위 분석
- 한글 2.0과 sigma plot 소개
- 중국의 주택정책
- 한국농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 금융실명제의 실상과 의의
- 일본 공동육아제도의 정치화
- 한국 공동체의 이념
- 마르크스의 실천적 인식론
- 지역사회에 있어 국제화의 대응과 전략
- 인도여행기
- 지방정부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
- 한국 농촌 주거 환경의 새로운 모색

2) 논문집 발간

충북지역사회연구회의 논문집은 91년 9월 창간호가 발행된 이후 94년 9월 현재 제4집까지 발간되었다. 논문집은 월례발표가 된 논문이 추가 되지만, 지역사회의 이해와 학제간 교류를 위해서 이미 발표된 논문도 필요하다면 게재하였다. 논문집에는 논문 외에도 지역사회 정보, 역사 탐방기, 해외 탐방기 등을 게재하였다.

4. 향후 전망과 과제

그동안 본 연구회의 활동은 창립 당시에 의도했던 만큼의 활동과 회원의 내부역량을 집결하지 못했고 지역사회 인사들과도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월례발표회와 그 결과로서의 논문집 발간은 본 연구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시행은 외적 여건의 성숙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회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의 수를 늘리고 참여의 폭을 교수 이외의 각종 분야의 지역인사에 확대시킨다. 둘째, 월례발표회에 회원 외의 충북지역사회와 관련된 연구자 및 관련 실무자 등을 초청 참여시킨다. 셋째, 충북지역사회의 현안 문제에 대한 학제간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넷째, 충북지역사회 연구와 정보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민간 연구소로 발전한다. ▣

유진채 /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테크 대학에서 석사,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미국 U.C. 데이비스 객원교수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충북지역사회연구회 회장으로 활동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일제하 사찰토지의 소유관계 연구" 외 다수를 발표했다.